고은 불교대하소설

포로를 위하여

합두가 목을 축인 뒤 얼굴을 물로 씻었다. 그것은 얼굴을 씻는다기보다 얼굴에 물을 바르는 것이었다.

그런 동작은 두어번 이상 되풀이되지 않았다. 합두의 얼굴이 오전의 신선한 햇볕을 받아 아주 값비싼 금속(金屬)의 빛으로 물들었다.

이런 얼굴 모습에서 장차 불상을 조성할 때의 도금술(鍍金術)이나 불경의 장엄을 위한 이납(泥金) 등의 기술이 발달했는지 모른다. 그만큼 그녀의 빛나는 얼굴은 물에 적셔져 있었던 그윽한 육감을 자아내는 것과 함께 빛나고 있는 위엄을 함께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얼굴이야말로 두 남자에게 한없는 격려가 되고 있었다. 이 외지할 곳 없는 사막 한복판이나 아니 사막 한복판에서 만난 구원(救援)의 오아시스 조차도 더이상의 구원이 될 수 없는 절망에 에워싸인 판에 합두의 아름다운 얼굴이 태양과의 꾸밈없는 천연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 자체가 태양이나 태양이 떠 있는 하늘에 대한 하나의 대칭(對稱)으로서의 대자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저쪽을 보세요. 저쪽에도 우리 친구가 있습니다."

그녀가 담담하게 가리킨 곳은 이틀전의 어제의 사구가 바람에 의해서 내려앉은 곳에 몇천년 전의 화석 일부분과 함께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해골의 다리부분과 두개골이 아무런 목적없이 드러나 있었다.

그것들은 이제까지 잘 묻혀있었던 것이다. 어떤 곳에서는 그것들은 모래속 깊이 묻혀있는 오랜 정상(正常)에서 바람이 허물어버린 사구 그 정상적인 행복을 빼앗겨버린 셈이다.

"어찌 이것들이 우리의 운명과 다르겠습니까"라고 만화가 긴 숨을 내쉬며 내뱉았다.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자신이나 불이와 합두까지도 사막의 해골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공포이기도 하였다.

그러자 불이가 그 말을 건너 뛰었다.

"해골 가운데는 누워있는 것도 있지만 걸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해골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옛날의 희미무례한 기억에는 내가 모든 육신을 갖춘 중생은 배다귀로 돌아간다는 것을 내세운 고골관(枯骨觀) 공부를 한 일도 있습니다."

합두가 대답하였다.

"그렇지요… 나는 해골바가지 하나를 잘 때마다 배개 맡에 놓아두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해골바가지가 밤마다 품고 자는 부처노릇을 어느 만큼 대신해준 것이지요."

벌써 그들의 걸음은 사막 위의 쭉쭉 빠지는 곳을 지나서 약간 굳은 사막에 접어들었다.

"물이다!"

라고 만화가 달려가며 외쳤다.

과연 이제까지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풀 한 포기 보이지 않던 사막의 한 군데에 실로 놀랍게도 그런 물이와 함께 이때다하고 주저앉아버렸다.

그들은 한동안이 지나서 의식상태가 온전하지 않게 되었다. 머리속은 몽롱하였다. 그런 머리속에는 자꾸 헛된 생각이 마치 현실에서 일어난 일로 착각을 이루고 있었다. 이를테면 만화의 앞에는 하얀 쌀가루와 밀가루를 섞어 만든 떡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집어먹을 만한 힘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환청(幻聽)도 있었다. 어디선가 수많은 기병대의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으며 그 말발굽소리 못지 않은 함성도 공중을 꽉 채우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소리에 놀라 일어설 힘이 없었다.

그런 판인데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다.

"피융!"

하고 멀리서 날아 온 화살 하나가 혼수상태의 불이의 어깨쭉지에 박힌 것이다.

"으음"하고 불이가 깨어났다. 그는 눈을 떴다. 어깨쭉지에 박힌 화살은 아직도 떨고 있었다. 그는 벌떡 일어날 수 있었다.

그는 한 손으로 화살을 붙으려 했지만 너무 아파서 단념하였다. 그는 눈을 감았다 떴다하는 합두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것이 날라와 박혔어요!"

갑자기 화살 하나가 불이의 어깨에 박히더니 저쪽에서 기병대가…

합두가 불이의 어깨쭉지에 박힌 화살을 주저하지 않고 단번에 힘을 주어 빼었다. 화살촉의 낚시때문에 어깨쭉지 깊숙한 살점이 함께 드러나는 고통이 따랐다. 붉은 피는 바로 곧 굳어졌고 이어서 바로 딱지가 앉았다.

불이는 "앗"소리도 내지 못한체 입만 벌리고 있었다. 그런데 화살을 맞지도 않은 만화가 의식이 깨어나서 어떤 악몽 때문이었는지 "아악"하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불이의 비명을 대신 질러 준 것일까.

아무튼 세사람은 사막을 건너가는 동안 이따금 일어나는 의식의 쇠약증세로부터 깨어나서 불이의 몸에 박힌 영문도를 화살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 하였다.

화살촉은 매우 거칠게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것은 중국 변방 진주군의 한 부대 병사가 쏜 것인지 변방 강도집단들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 구리로 된 촉은 꽤나 예리한 것이었다.

그들이 그 구리로 된 화살촉의 대를 꺾어서 내버린 뒤에 이어 사막 저쪽의 호물거리는 폭염 속에서 어떤 물체가 나타나고 있었다.

아주 느릿느릿한 짐승임에도 이런 때는 제법 속력을 내어 타고 있는 사람들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었다. 낙타를 타고 있는 사람들 전부가 머리를 누런 천으로 감싸고 있어서 눈만 내놓고 있었다.

"웬놈들이냐?"

"…."

"웬놈들이… 우리 두령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 금구(禁區)에 들어섰느냐? 내놈들은 이제 우리 손아귀에 들어왔다."

낙타 무리 한 가운데에 있는 쌍봉낙타에 탄 건장한 사람의 고개짓으로 세사람은 즉각 두 팔을 뒤로 묶여서 각각 낙타 앞쪽에 태워졌다.

"돌아가자!"

하는 명령이 떨어지자 그 낙타행렬은 오던 길과는 약간 다른 방향의 동북쪽을 향하는 것이었다.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는 침묵의 행렬이었다. 낙타들도 오직 걷기만 하고 있었다.

어느덧 낙타에 태워진 세사람의 포로도 사막을 헤매기 보다 이렇게 사막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무리들에게 끌려가는 쪽이 훨씬 마음이 놓이기까지 하였다. 특히 만화는 합두의 예언이 들어맞는 것에 탄복하였다.

오아시스도 낙타때도 다 들어맞았기 때문이었다. 정작 그런 예언의 합두는 이 행렬의 중간 낙타에 태워져서 대장의 각별한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았다. 여자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 낙타무리 가운데는 식자(識者)도 끼어 있었던지 고대로부터 이 일대에 퍼졌고 있는 서역시관(西域詩篇) 가운데서 불교 취향이 짙은 '바람타령'을 흥얼흥얼 소리내는 것이었다.

그것은 너무나 긴 침묵이 지루했던지 낙타가 한번 그 아릇한 울음소리를 낸뒤 이번에는 사람이 그 울음소리를 이어받는 셈이 되었다.

> "웬놈들이… 우리 두령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 금구에 들어섰느냐" 세사람은 건장한 사병들에 의해 두팔이 뒤로 묶여 낙타에 태워졌다

한몸에 본디 잇속이 없느니
네가지(地水火風)가 한곳에 모인 것일뿐
바로 바람이 불에 달려옴인가
또 불이 바람을 쫓아옴인가
바람이 강하면 불은 더욱 활활
불과 바람이 다하면
그때에야 별은 온 하늘에 뿌려지느니
一時無本利
四大聚會同
創火風吹火
還如火逐風
風盛火焰炎
風疾火愈烈
火風俱策盡
星散總成空

이런 '바람타령'을 읊조리는 것으로 보아 이 낙타무리는 옛 고창국(高昌國)이나 서역도호부(西域都護府)에서 이어져온 잔류인의 후예인지도 모른다.

"이제 다 왔다"라고 앞쪽에서 소리쳤다.

그림 · 조향숙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 생활용품 • 개인업체 • 불교관련용품 • 정보교환, 소식 • 자체홍보 • 안내 • 각종행사 • 신상품소개등

문의 (02)737-8881(종교국) 팩스(02)737-0697

선 관 단 식
극민학생들도 쉽게 수행하는 대중적인 수련법입니다.
수련장 사무실 동방연 파동선 울산빌딩
안내 ☎ (0893) 34-1115-6

척추교정 · 지압 개인지도 (CHIROPRACTIC)
• 교육내용
: 목 · 허리디스크, 신경통
: 관절염 · 중풍예방시술법
: 비만 관리 시술법
: 음양오행 건강 지압법
장삼수 건강연구원
압구정역 543-7306

불교서적의 모든 것
불서 출판 윤주사
• 종로구 청진동 6번지
• TEL (02) 720-9372~3
• FAX (02) 723-0646

봉축 현수막 전문 제작
공장 직영
삼 보 기 업
전화 (02)279-2715
팩스 (02)275-3739

불전 및 古殿건축 木材에
■ 木材放火劑(화재예방용)
■ 木材활열방지제(갈라짐 변색)
■ 木材방충 · 방부제 목재(원목) 수입판매
■ 木材탈취제(청변균제거)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11 상원B/D (을지로 2가)
전화 (02)266-2629
팩스:(02)266-2679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업 80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저희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범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E(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스님 · 사부대중께서는 전화 문의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본사 범종제작 및 대표작품 실례 다수
주식회사 聖鐘社 대표 元光植(梵山)합장
☎ (02)733-6141(서울사무소)
☎ (0331)283-2083(공장)

연꽃 장식화 기타 (개량, 백자, 목각등)
거송동양화 화실
거송철학원(운명조언)
서울시 용산구 청파1가동 140-3 (중신빌딩 308호)
전화 (02) 3273 - 0081
· 진품 배락 맞은 대추나무 (도장, 부적재료) 진품식별법 및 진품 공개 !

포교에 뜻있는 분
포교의 서원을 세워 안양시에 포교당을 운영하실 분을 찾습니다. 전임 주관 법사께서 중국대학원 학업 때문에 포교당에 계속 주석 할 수 없어 후임자가 필요합니다.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신도시 시장 입구 3층 전용 3층
포교당 공간: 6평 (법당,방,주방,사무실)
독실 겸용 사용(법)
신도시아파트 최대 밀집지역, 시장인근, 포교적지
연락처 (0343 - 29 - 3733, 호출 015 - 236- 3737)

탁자, 담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불사 업적
• 합천해인사 대웅전 · 법당 · 경내
• 지리산대원사 대웅전 주지한 법당 경내
• 지리산관음사 대웅전 주지한 경내
• 서울번화사 법당 주지한 동국대학교
• 충주청룡사 대웅전 주지한 법당 경내
• 대전관촌사 대웅전 주지한 경내
• 포천명성사 대웅전 현재 단청
• 안양호계사 대웅전 주지관련법당 경내
• 서울개운사 화장 법사 그리고 다수 사찰
대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택 02-248-4609
공장 0346-671-6538
호출 012-210-1401
趙貞玉 합장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 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회원모집중
년2회실시 4월 · 8월 검정고시 국졸 · 중졸 · 고졸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국교 졸업과정 | 한글반 · 재수생 · 직장인 · 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 ⊙ 업계 불이원 체험 「강의해설교재」
고교 졸업과정 | ⊙ 학교수업식 「강의 녹음」 학습
대학 졸업과정 | ⊙ 철저한 1 : 1 「담임 관리제」
※ 한글 속성 1개월 업계 최단 가능
축 신영희(72세, 할머니) : 서울高과정(24개월)
박순희(45세, 주부) : 부천시(5개월)
이상수(39세, 직장인) : 서울高 · 大과정(36개월)
■ 특전 :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6년전원졸업목표 ➜ (영 · 수) 「비디오강좌교재」 특별제공 (세인식품)
불저한 학습공간! 전화접수(비밀보장 PM 9 : 00)
기초(영어, 수학) 가 안한 분을 위한 별도 배정실 제공
◆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국민학교를 2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시퇴에 나타나는 두고두고 학력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번 대한교육평가원에 노크하여 94년 4월 4일에 등록했고 학 두 달후인 5월 21일에 국민학교 총정과정 시험인 "중학교 입학자격 인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다시 중학교 과정의 공부를 시작하여 3개월후인 8월 13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인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희망에 차서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인되도록 힘이 되어준 대한교육평가원에 감사드리며 무슨하나라 계획 없은 일을 가르치 하는 분들에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최경일(남, 27세) 드림 —
학사학위취득전문교육 대한교육평가원
우 110-410 서울 종로구 안의동 쌍문동빌딩 2층 213호
상담전화(비밀보장) (저녁 9 : 00까지 접수) 02)766 — 9090
(수신자 부담) 크로바써비스 080 — 023 — 4600